

전남 동부권

여수박람회장에 태양광 파고라·솔라트리 신재생에너지로 조경 꾸민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태양광 파고라와 '솔라트리'(solar tree)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조경 방식으로 꾸며진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박람회장 조경공사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박람회장 조경공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조직위는 조경공사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박람회 주제에 부합하도록 '상징적이고 친환경적인 박람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32만1000㎡ 부지에 식재공사, 시설물 공사, 수경시설물 공사, 포장공사 및 게이트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조직위 양홍주 전시2과장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조경은 박람회의 첫인상이자 마지막까지 감동을 이어

가게 하는 박람회 성공개최 주요한 요인"이라며 "실시 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현대건설, 대림산업)에 대한 기술 평가 및 가격인찰을 거쳐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번 제시된 기술제안에 따라 개회시기를 고려한 획기적인 온도저감 방안(박람회장 전역에 43%의 그늘제공·체감온도 영하 5도 내외 저감)을 비롯해 도시, 자연, 인간, 문명을 테마로 한 게이트(gate) 외에도 풍력 발전기, 태양광 파고라, '솔라트리' 등을 도입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유한 친환경적인 박람회 구현에 역점을 두어 조경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여수신항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한계에 도전하세요"

보성군 5월 1일 '녹차 마라톤대회'

보성군은 '제7회 보성녹차 마라톤 대회'를 오는 5월 1일 개최한다. 이번 대회종목은 풀, 하프, 10km, 5km 구간으로 보성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용문 삼거리 → 미력면 정자교 (5km 반환점) → 미력면 도개마을(10km 반환점) → 북내면 평주(하프코스 반환) → 북내면 계동마을 → 북내면 복내지구대 → 북내면 산유월 → 겸백면 양지마을(풀코스 반환)을 거점으로 한다. 이 구간은 대한육상연맹 공인코스로 전 구간이 완만해 가족과 함께 달리기에도 좋고 기록단출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에게는 각종 기념품과 부

상으로 녹차관련 제품과 보성 녹차미 인쌀 등이 주어지고 녹돈, 녹차국수 등 음식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시상품도 연령대별로 새로 마련해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대회는 늦가을에 열렸어도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며 "올해 대회에도 많은 동호인이 참가해 봄의 정취를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접수는 다음달 15일까지이며 대회 사무국(02-435-6081~2)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run.boseong.go.kr)를 참조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순천농협 조합자녀 장학금 2억4천만원

순천농협(조합장 이광하)은 최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농업·농촌발전에 밀거름이 될 조합원 자녀 24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순천농협은 지난 1997년 순천농협 대단위 합병 이후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급을 시작, 2006년부터는 매년 220

명에게 각 100만원씩 2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1997년부터 지급된 장학금은 총 21억원에 달한다. 이광하 조합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기자노트

여수시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폈다. 지난 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람회 시내도로 확충사업에 필요한 예산 270억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된 정부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석창교차로 개선과 여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간 연결도로 확충은 박람회 기간중 교

국회, 여야 등 국회의원을 '흔이 빠지게' 뛰어다녔다. 김 시장은 지난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시내도로 조성 등에 1549억원을 지원한 점과 참여정부가 수립한 여수충리가 19조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정부 설득의 무기로 삼았다.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

여수시장의 특심



박성태 (동부취재본부 기자)

통탄 해소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국도가 아닌 '시도'라는 이유로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을 완강히 반대해 사실상 모두 포기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전직 시장의 비리정국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아예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김중석 시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김 시장 특유의 특심이 발동한 것이다. 그는 취임 직후 아예 정장을 벗어 던지고 엑스포 홍보전퍼로 같이 입고 청와대와 세계각국 사무국을 비롯해 중앙정부,

구청장 초청 국정실명회 자리에서도 순서에 없는 발언기회를 잡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날 유일하게 접퍼를 입은 김 시장의 발언을 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여수시장처럼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국비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상이다. 여수시민의 자긍심을 살려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침체된 여수시민·관이 하나돼 성공적인 박람회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mihang@kwangju.co.kr

보성군 '군민과의 대화' 12개 읍면 220건 의견 수렴

보성군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 총 220여 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해 40여 건은 현지 답변으로 해결하고, 180여 건은 현장 확인 및 세부사항을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2011년도 군정보고와 군정에 대한 여론조사나 제안 등을 정중해 군수가 직접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구례 산수유꽃축제' 결국 취소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연기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구례 산수유꽃축제'가 결국 취소됐다.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우두성)는 2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례군 확산에 따라 '산수유꽃 축제' 취소결정을 내렸다. 우두성 축제추진위원장은 "구례군의 경우 구례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4일부터 축제를 정상 개최하려 했으나, 최근 고병원성 조

류독감(AI)이 경기 여주에 이어 구례와 인접한 담양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축제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 산수유꽃 축제는 행사장을 산수유꽃 곤라지로 옮기고 '산수유 돌레길'을 처음 공개해 취소되더라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산물 판매코너와 화장실, 교통대책 등 관광객 편의시설은 정상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태기자 ik5826@

세얼굴

지·덕·체 조화로운 인재 육성

박문재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업혁신을 통한 학력향상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부임한 박문재(58)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순천교육가족 모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순천교육을 실현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지적·정의적·신체기능적 조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력을 결합하겠다"고 밝혔다. 보성 출신인 박 교육장은 전남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6년 교직에 입문한 뒤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관, 담양여중 교장, 전남도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서희씨와 사아 2남을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북

모악산에 하늘다람쥐 산다

멸종위기 2급 포유류 전북녹색연못 서식 확인

멸종위기 2급 포유류인 하늘다람쥐가 모악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전대책이 절실하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모악산 생태조사결과 1일 오후 3시에 전주시 중인동 모악산 4~5부 능

선에서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하늘다람쥐가 나무에서 노닐고 있는 것을 카메라로 포착했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은 "산림파괴와 벌목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하늘다람쥐가 모악산에서 발견되는 처음"이라며 "모악산이 예기풍과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 확인된 만큼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늘다람쥐는 한국 특산의 희



귀족으로 백두산 일대에서 흔히 관찰되며 주로 시베리아와 만주 등 침엽수림 지역에서 단독생활을 하거나 두 마리씩 모여 서식한다. /전북취재본부=김은종기자 k0765@

임실 5개 향토축제 통합 개최

군, 내년부터

임실군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개최됐던 5개 향토문화축제를 올해는 봄과 가을로 구분해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하나의 축제로 통합해 열기로 했다. 올해는 봄축제(4월 29일~5월 1일)로 오수 의점문화제와 치즈페스티벌을, 가을축제는 소충 사선문화제와 고추·산머루 축제를 함께 열기로 했다.

군은 축제를 분래 기능대로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주민의 참여와 화합,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4명의 축제 대표자로 구성된 축제통합운영 준비위원회(위원장 강완목)를 구성해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해온 결과 향토문화축제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올해 개최하는 축제에 대한 운영평가와 전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제경찰 어린이 보호 교통 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조용식)는 3일 시내 일원에서 김제시청·김제교육지원청·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10개 기관 및 협력단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지키기와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한 한·관·경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도 벽골제 풍물단원들이 풍물놀이를 펼쳐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조용식 서장은 "이달부터 연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다"며 "부모의 마음으로 안전한 등하교길 만들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단신

남원 지리산 돌레길서 오늘 당산제

한반도 중심 산줄기인 백두대간 구간이자 '지리산 돌레길'(1코스)에 자리한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노치마을에서 풍년농사와 마을 안녕, 등산객들의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4일(음력 1월 30일) 오전 11시 열린다.

남원문화원 주최, 노치마을 당산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당산제는 우물굿을 시작으로 들장산굿, 당산제례, 당산굿, 날장산굿 순으로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정읍시, 농촌 소득 49개사업에 31억원

정읍시는 2011년 농촌진흥사업으로 소득작목·농촌사회·식량작물 등 49개 사업에 3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소득작목 부문은 ▲자생차 제품 생산인구육추 지원 5억원 ▲원예작물 유량증포생산지원 1억원 등 모두 30건에 18억6천800만

원이다. 또 농촌사회 부문은 ▲농촌교육농장 육성 1억2000만원 ▲쌀가공식품 창업지원 1억원 등 모두 7억3300만원이고, 식량작물 부문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2억원 등 모두 6억5400만원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김제 문화예술회관 오늘 '행복충전 콘서트'

김제시는 4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티엔비(T&B) 솔리스트 앙상블과 소프라노 문자희가 출연하는 '2011 행복충전 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 2007년 13명의 유학파 성악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T&B 남성 솔리스트 앙상블은 '넬라 판타

시아'(Nella Fantasia, '라고요', '침밀밀', 'Ich Liebe Dich'(당신을 사랑합니다) 등 귀에 익은 음악을 독특한 색깔로 표현한다. 이날 공연은 소프라노 문자희 씨가 게스트로 출연해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등을 선보인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순창군 '농업특성화 기술개발' 선정

순창군은 최근 농촌진흥청 주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1억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인 블루베리 연구에 나선다. 군은 앞으로 구립면 사골에 위치한 소득개발 시험포를 블루베리 중심 특화작목 연구센터로 전

환해 기술보급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량증중 보급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전략 화곡품목으로 블루베리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대 재배단지 조성을 목표로 올해 총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한식 조리학교' 내년 개교

道, 이달중 재단법인 설립절차 마무리

오는 2012년 전주대에 한식조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국제 한식조리학교'가 문을 열 전망이다. 전북도는 한식의 우수성을 통해 식품·외식·문화·관광 등과 연계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 한식조리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전북도는 '국제 한식조리학교'를 전문성 있게 운영할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11일 2차 발기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2차 발기위원회에서 '국제 한식조리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관 및 임원과 재산출원, 사업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이달 중 등록상산식품부의 허가절차를 거쳐 '재단법인 국제 한식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 위치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함께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메카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재) 국제 한식문화재단의 임원으로 구성된 전북도-전주시-전주대학교는 물론 국내 특급호텔, 식품 및 외식기업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한식교육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자리하기에 손색이 없게 준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내년 2월 개교 목표로 건물 리모델링과 교육기자재 확충, 학교장 등 전문인력 충원, 국내외를 대상으로 조리학교 설립 및 신입생 모집 홍보 등 본격적인 실무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120억원을 들여 전주대 분관 4·5층을 리모델링해 단기(1~3주)과정·중급(1년)·고급(2년) 과정의 한식 조리학교와 부설 한식당, 한식문화교육관 등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을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 한식조리학교는 '전통 향토음식 보급 확대'와 '식품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한식조리 인력양성을 위한 최고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조리학교 교육을 통해 양성된 최고의 한식 전문 조리사는 국내외 특급호텔과 고급 한식당에 취업해 한식 세계화를 이끌어 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